

의안 번호	287
----------	-----

제출년월일 : 2016. 7. 26

청원서

1. 시정발전에 힘쓰고 계신 춘천시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동면 정족1리 3반(13가구), 4반(20여가구)은 오랜 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주 작은 규모의 농촌마을입니다.

3. 평화로운 저희 마을에 지난 해(2015년) 11월부터 인근 과수원부지에 새로운 단지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져 정족1리 이장 변종일과 함께 민원인 등이 면사무소 총무계 건설토목담당 유재복과 춘천시 민원소통담당관실 개발행위계에 공사차량 및 관련인 차량으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교통사고 위험 등 각종 피해의 방지는 물론 우리 마을에 있는 문화재보호(강원도문화재자료 65호와 68호)와 강원도 유일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오정희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지역의 개발행위 중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구두 민원을 제기한 바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해당 토지를 분할, 매각하게 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계속 내줌으로써 마을 주민의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마을주민들은 2016. 6. 12일 긴급회의를 통해 마을주민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관계기관에 진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청원인들은 2016. 6. 4일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첨

부자료-1: 진정서)하였으나 춘천시는 우리 마을의 여건과 특수성(보호되어야 할 문화재와 유명작가의 작업실 서재의 존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조차 무시한 채 무조건 법령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형식적이며 미온적인 대책(첨부자료-2: 춘천시 답변서)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5. 춘천시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 라항에서, <‘도로폭 확장’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부지의 중장기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맞은 편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및 기존 마을안길을 포함하여 종합적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우리 마을, 아니 춘천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회가 이 문제해결에 앞장 서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 원 내 용]

가. 개발행위 허가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령만을 내세워 업자의 입장에서만 해석, 적용하여 단지를 조성하게 한 뒤, 단지내 분할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어 주민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와 유명작가 창작환경보호 등 우리 마을 공동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시까지 해당 단지내 각종 인허가를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나. 문화재자료 제68호 주변은 강원도조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춘천시 답변서 가, 나, 다항)고 답변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근거일 뿐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호와는 거리가 먼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황도로와 문화재가 바로 접속되어 있는 만큼 공사차량 및 각종 외지 차량통행으로 계속 피해가 발생(별첨 진정서 및 관련사진 참조)하고 있고 통행차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문화재 훼손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은 비단 마을주민 뿐아니라 시민 전체의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다. 현황도로(문화재 68호 앞길 및 정족리645-1)는 진정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바, '전'으로 되어 있는 엄연한 사유지

로 소유자와는 아무 협의나 대책수립도 없이 인근에 단지개발을 허가하여 인도도 없는 좁은 마을 안길을 대형 및 각종 공사차량과 토지소유자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라. 진정시 이미 언급한 바,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정족리 645-1 별동은 우리나라 대표작가인 오정희 작가(첨부자료-3: 소설가 오정희의 주요경력파 창작실적)의 창작공간으로 설계된 작업실 서재입니다. 우리나라 각 시군은 그 지역 유명작가의 창작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깝게는 박경리의 토지문학관 및 문학공원, 화천의 이외수감성마을, 평창의 이효석문학관, 김유정문학촌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는 이문열, 김주영, 이청준, 김승옥, 황순원, 김동리 등등 작가의 이름을 붙인 수많은 문학관을 자치단체 비용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명작가의 창작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 커녕 이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 작가와 문화계 인사들의 창작환경보호에 관해서도 큰 관심가지시고 앞으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주실 것을 아울러 청원합니다.

이상 청원드린 바대로, 실효성있는 문화재보호와 우리나라 대표작가의 창작환경보호, 좁은 도로여건과 새 단지개발에 따른 폭증하는 교통수요 대처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적극적

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리 마을의 새로운 종합적인 교통대책
을 조속히 수립해주시고 이 대책수립시까지 해당 단지내 인
허가를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신동면 정족1리 3반
과 4반 주민,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 명의
연대서명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2016. 7. .

청원인 공동대표 박 용 수
주소: 신동면 솟발1길 48
연락처: 010-9057-1947



청원인 공동대표 김 남 영
주소: 신동면 솟발1길 44
연락처: 010-3770-0221



#별첨 자료-1 진정서 및 관련 각종 자료
자료-2 춘천시 답변서
자료-3 소설가 오정희 주요경력 및 창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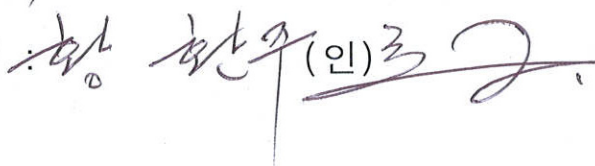
귀 하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사항	청원명	문화재 보호 및 창작활동 공간의 교통대책 수립 청원의 건
	청원인	박용수, 김남영
청원소개의견	<p>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춘천지역의 문화 창작활동 공간 조성과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청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김유정 문학촌을 중심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설치 후보지 선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이미 우리시에 정착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 문학분과 회원의 작업실 주변의 공사로 인하여 주거생활 및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춘천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춘천시민에게는 높은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경쟁에 뛰어난 춘천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p> <p>또한 이 지역에는 최재근 가옥과 김정은 가옥등 전통가옥이 소재하여 춘천의 주거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으나 도로여건이 협소하여 대형 공사 차량의 이동으로 지방문화재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p> <p>비록 이번 청원이 개인의 민원적인 형태로 보일지라도 청원서의 불임서류를 참고하시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 확보와 소음, 분진, 교통사고 우려가 없이 창작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춘천의 전통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p> <p>다시 한번 이 청원에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이 청원이 개발과 보전의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민원이 될 수도 있으나 춘천시의회의 모범적인 청원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p>	

위와 같이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춘천시의회의원 :  (인) 3

춘천시의회의장 귀하